

다문화가족 남편의 정신건강, 레질리언스와 행복에 대한 연구

A Study on Mental Health, Resilience and Happiness of Intermarried Korean Men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 수 김민경*

Dept. of Child welfare, Namseoul Univ.

Professor : Kim, Min-Kyeong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uncover the relationships and correlations between mental health, resilience and happiness. The sample consisted of 184 intermarried Korean men. The data were analyzed by means of frequency, Pearson's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Mental health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resilience and happiness, except for the component of negative emotion. Additionally, resilience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feelings of happiness and positive emotion. Second, social maladaptation and depression had a negative influence on resilience and a negative influence on happiness. Resilience had a mediating effect on mental health and feelings of happiness. Resilience had a mediating effect on mental health and positive emotion, while resilience had a mediating effect on mental health and negative emotion. In conclusion, in order to improve happiness it is important to mediate on intermarried Korean men's resilience through special education programs and counseling.

▲주요어(Key Words) : 정신건강(mental health), 레질리언스(resilience), 행복(happiness), 다문화가족 남편(intermarried korean men)

I. 서론

다문화가족 남편들의 가부장적 사고와 무지가 가정내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지만 가족폭력자라기 보다는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피해자이기도 하다. 대부분 다른 문화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도 없으며 한국사회에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짧은 기간에 외국아내를 만나 가족이라는 친밀한 공간에서 갈등을 겪으며 생활한다. 특히 제 3세계 여성들이 기대하는 경제적, 문화적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한국남성들은 계층적, 사회적 불평등의 재생산과 세계화의 짐을 외국인 아내와 함께 지고 있다(Chae & Hong, 2008).

그러나 다문화가족 남편이 우리사회 한 구성원으로서 행복이 담보될 때 가족전체의 행복에도 연관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다문화가족 남편의 행복을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는 거의 없다. 대부분 결혼이민여성을 중심으로 한 행복(Kim, 2007)과 결혼만족도(Kim, 2008)가 이루어졌고 남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피해사례를 통해 본 결혼이민자남편의 갈등(Chae & Hong, 2008), 부부되기과정에 대한 문화기술지(Kim, 2009), 남편의 결혼에 대한 생애사 연구(Um, 2010), 남편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Choi, 2009) 등 질적 연구가 대부분 이루어져 이들 삶의 전반적인 결혼생활을 심층적으로 다루고자 한 시도가 있어왔다. 다문화가족 부부의 행복(Yang, 2007), 가정생활적응(Kang & Chung, 2009), 결혼적응(Song & Lee, 2010; Chu et al., 2008), 레질리언스(Chang,

* 주저자 · 교신저자 : 김민경(E-mail : mkm35@nsu.ac.kr)

Jun, & Shin, 2009) 등이 이루어졌다.

다문화가족 남편들도 개인의 특성이 아닌 가족과의 유대와 결혼생활에서 행복을 느끼고 있어 친밀한 부부상호작용 형성에 노력해야 함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특성은 Yang (2007)의 연구로 확인된다. 즉 농촌지역 국제결혼남편의 행복에는 부부상호작용과 결혼만족도가 좋을수록 행복한 것으로 나타나 부부관계와 결혼생활이 남편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큼을 알 수 있다.

반면, 다문화가족 남편의 행복을 방해하는 요소로 주관적 차별감, 우울, 사회부적응 등이 작용하였다(Yoon et al., 2007; Chu et al., 2008). 반면 우울(Abramson et al., 1989), 불안(Block & Kremen, 1996), 사회부적응(O'Connell-Higgins, 1983) 등이 높은 경우 이를 제지할 수 있는 것을 레질리언스의 존재이기도 하다. 따라서 레질리언스의 존재는 다문화가족 남편의 결혼적응(Chu et al., 2008)이나 행복(Yang, 2007)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레질리언스가 높은 경우 인간관계만족도, 친밀감, 생산적 수행능력(Holye et al., 1999), 삶에 대한 긍정적 참여에도 가능하게 한다(Block & Kremen, 1996). 이러한 결과들을 볼 때 다문화가족 남편의 레질리언스나 행복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어왔고 따라서 이들에 대한 객관적 시각과 건강성에 관심이 적어왔고 편협된 시각을 창출해 왔다. 또한 최근 급증하고 있는 국제결혼 부부의 다양한 해체사유 중 이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점검이 있어야 한다(Kim, 2011)는 주장이 있어왔지만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다.

따라서 다문화가족 남편의 정신건강과 레질리언스와의 밀접한 관계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우울과 사회부적응은 레질리언스와 부적 관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레질리언스는 우울과 사회부적응적 요소가 있다하더라도 레질리언스의 작용이 주어진다면 행복해 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다문화가족 남편의 정신건강과 행복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이들의 향후 삶의 질 향상과 사회속에서 통합을 위해 심리사회적 측면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관점을 제공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 남편의 정신건강, 레질리언스와 행복과의 관계를 파악해보며 이들의 레질리언스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레질리언스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다문화가족 남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다 효과적인 실천전략을 수립하는데 유용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둔다. 첫째, 다문화가족 남편의 정신건강, 레질리언스와 행복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다문화가족 남편의 정신건강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레질리언스의 매개효과가 있는가? 등으로 설정하였다.

II. 선행연구고찰

1. 정신건강과 레질리언스

다문화가족 남편의 정신건강을 우울, 불안, 사회부적응으로 보았으며, 건강한 부부관계를 이루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각 개인 혹은 배우자의 건강한 자아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Levine, 1991; Metz, & Epstein, 2002). 레질리언스는 스트레스와 위기, 역경과 위협적인 상황속에서도 이를 견디고 스스로 치유하며 불리한 상황을 극복하여 이전 기능수준을 획득함으로써 앞으로 안녕의 상태로 살아가도록 하는 능력이며 성공적으로 위기와 역경에 적응하는 건강한 특성으로 규정할 수 있다(Kim, 2006). 먼저 우울과 레질리언스와의 관계를 보면 무망감에 빠져있는 사람은 모든 일에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이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동기와 에너지가 결핍되어 있으며 냉담, 슬픔, 비판과 같은 부정적 정서와 그에 따른 행동을 경험하게 되며 궁극적으로 수면장애, 우울, 주의력 결핍 또는 자살에 대한 생각과 시도로 연결되기도 한다(Abramson, Meltasky, & Alloy, 1989). 불안에 대한 민감성을 낮추고 삶에 대한 긍정적 참여를 가능하게 한다(Block & Kremen, 1996). 자신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평가는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칭찬보다 자신의 내면에서 더 많이 비롯되는 자신의 가치에 대한 개인적 지각이라고 하였다(Park, 2011).

사회부적응과 레질리언스와의 관련되는데 결혼이주여성 남편의 사회적 지지가 높은 경우 자존감도 높게 나타났다(Chu et al., 2008). 자아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문제상황에 불안해하지 않고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항상 마음을 열어 놓고 신뢰감을 주며 대인관계에서나 사회적 측면에서 적응적인 사람들이라고 하였다(Song, 2006).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관련연구를 통해서도 이들 관계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Chapman and Mullis(2000)는 자존감이 낮은 청소년의 경우 타인을 비난하거나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고 될대로 되라는 식으로 내버려두며 낮잠을 자거나 음악을 듣거나 하는 방식으로 문제상황을 피해가려는 태도를 보인다고 하여 내적 감정과 정서상태가 대학생의 자존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자아탄력성의 수준이 높을 경우 정서 및 행동문제에 있어 더욱 적응적으로 나타났다(Kim, 2005). 뿐만 아니라 O'Connell-Higgins(1983)는 자아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삶의 어려움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적인 접근성,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자신의 경험을 구조적으로 인식하려는 능력, 유아기 때부터 계속적으로 타인의 긍정적 관심을 얻어내는 능력이나 삶에 대한 긍정적 신념을 유지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현재의 스트레스와

갈등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가족의 문제해결기술과 미래의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초점은 현재 문제의 해결로부터 미래의 문제를 대비하고 예방하는 것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Chang, Jun, & Shin, 2009).

2. 정신건강과 행복

Veenhoven(1991)은 행복을 크게 전반적 개념과 세부적 개념의 두 가지로 구분했다. 전반적 개념 속에는 생활만족, 욕구충족 및 쾌락 수준이 있고, 세부적 개념에는 직무만족, 자아존중감 및 통제에 대한 믿음이 있다. 생활만족은 인지적 측면에서 자신의 삶에 대한 판단이며, 욕구 충족 및 쾌락 수준은 경험하는 긍정적 및 부정적 정서나 감정을 말한다. Andrews and Withey(1976)는 행복에서 삶에 대한 주관적 만족이라는 인지적 요소를 중요시한 반면, Diener(1984)는 정서적 측면을 강조하여 긍정적인 정서의 존재와 부정적인 정서의 부재를 중시했다. 종합하면, 행복은 삶에 대한 주관적 만족이라는 인지적 측면과 긍정적 정서를 많이 경험하고 부정적 정서를 적게 경험하는 정서적 측면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 이러한 입장에 근거해서 지금까지 행복에 대한 측정은 주로 인지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을 전반적인 수준에서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여기에 성별, 연령, 소득, 교육, 보건, 여가와 같은 객관적인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포괄적인 삶의 질과도 관련되는 요인을 포함시키기도 한다(Diener, Lusas, & Oishi, 2002).

우울과 행복의 관계에서 행복의 일부분인 결혼행복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다문화가족 여성들은 남편의 행동 때문에 속이 상하고 화가 나는 순간에 화를 분출하며 폭발하였는데 가족탄력성 접근의 부부관계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고 가라앉힌 다음에 차분하게 말로 자신의 불만이나 느낀 점을 이야기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으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남편에게 표현하게 되었다고 하였다(Kim, 2010). 결혼이민여성 남편은 자신감의 결여와 표현능력의 미흡이 나타났는데 가족관계 특히 외국인 아내와의 관계에서도 이러한 특성은 지속적으로 발견되었다(Um, 2010). 결혼이주 여성의 남편의 정신건강이 결혼적응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자존감이 높은 경우, 주관적 차별감이 낮은 결혼적응이 높게 나타났다(Chu et al., 2008). 국제결혼과정을 생애사 연구로 접근한 Lee and Kim(2009)은 국제결혼한 남성들은 부인과 동업자관계를 유지하다 교환가치가 비등해지자 긴장과 갈등이 생성되었고 이 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에 따라 혼인관계가 유지되거나 종료되는 특징을 보여 다문화가족 부부의 정신건강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혼의 안정성과 행복이 보장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사회부적응과 긍정적 정서는 아내의 사회적응을 통해서도 다문화가족 남편의 긍정적 정서를 유추해 볼 수 있다. 새로운 생활과 사회적 관계에 적응해야 하는 해외이주민이나 북한이탈주민 등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 사회적응변수의 영향을 찾아볼 수 있는데 즉 사회적응도가 높을수록 만족정도도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Lee, 2006; Yoon et al., 2007). 전반적인 사회관계와 문제해결능력 등은 그들 일상생활만족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적인 가정생활에서 다문화가정 부부에서 발생되고 있는 의사소통 문제, 생활문화차이, 가부장적 태도, 가족원의 동화강요, 가사분담문제, 모국으로 경제적 지원 등이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하였으며(Kang & Chung, 2009), 반면 이웃간의 교류수준, 부부관계 만족수준과 생활만족 및 심리적응과의 관계가 밀접하다고 하였다(Jung, 2008).

우울과 부정적 정서에서 부정적 정서가 수반되는 학업활동은 높은 우울 수준과의 관련성을 보고하고 있다(Chun, 2001; Park, 2006). 무망감에 빠져있는 사람은 모든 일에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이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동기와 에너지가 결핍되어 있으며 냉담, 슬픔, 비관과 같은 부정적 정서와 그에 따른 행동을 경험하게 되며 궁극적으로 우울로 연결되기도 한다(Abramson, Meltasky, & Alloy, 1989). 즉 우울이 다양한 병리현상 중 정서적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Jung, 1989)도 제시되고 있어 일상생활에서 안정적이지 않고 부정적인 경험을 통해 느끼는 부정적 감정과 연관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개인과 가족에게 발생한 문제와 위기상황을 잘 해결하고 극복했을 때의 성공적 경험을 통해 느낀 긍정적 감정이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Seo & Kim, 2009).

3. 레질리언스와 행복

Turner(2001)는 레질리언스란 역경에 직면하여 회복하는 능력이자 안녕의 상태로 기능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계속하려는 능력으로 규정하고 Walsh(1998)는 역경에서 일어나 이를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는 레질리언스의 특징 및 결과에 초점을 둔 정의이다. 또 다른 학자들은 상당한 역경의 맥락내에서 이를 해결하려는 긍정적인 적응력을 포함하는 역동적인 과정(Luthar, Cicchetti, & Becker, 2000)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결국 이것은 레질리언스의 과정에 초점을 둔 정의이다.

레질리언스의 하위요인인 자존감(self-esteem)은 주관적 안녕의 매우 강력한 예측변인으로 알려져 있다. 즉 개인의 건강한 성장과 성취에 따른 결과물인 동시에 인간관계와 생산적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행복을 증진하게 된다. 또한 개인의 탄력적 산물로 자기수용, 자기신뢰, 자기가치 등과

같은 다양한 개념을 통해 평가되어 왔다(Campbell, 1981; Rew et al., 2001; Sagy & Dotan, 2001 recited).

레질리언스와 행복과의 관계를 보면, 결혼이주여성의 남편의 자존감이 높은 경우, 주관적 차별감이 낮은 경우 결혼적응이 높게 나타났다(Chu et al., 2008). 결혼이민여성도 자존감이 높은 경우 결혼행복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Kim, 2007). 레질리언스의 주요하위요인인 자존감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고 활력적인 결혼생활을 이끌어간다고 하여(Lee, 1993; Culp & Beach, 1998), 레질리언스가 행복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긍정적 자존감을 지닌 사람은 인간관계에서의 만족도, 친밀감, 타인을 배려하는 능력, 생산적 수행능력 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분노를 잘 조절하며 반사회적 행동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Hoyle et al., 1999). 궁극적으로 레질리언스는 부적응을 방지하고 대처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으며(Cicchetti & Toth, 1998), 불안을 낮추고 삶에 대한 긍정적 참여를 가능하게 한다(Block & Kremen, 1996). 이러한 상황에서 레질리언스는 불안감을 느끼거나 억압적이고 부담을 주는 상황을 극복하는 힘과 관련이 있는데(Pajares, 1997), 부정적 정서가 높을수록 레질리언스는 낮아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4. 정신건강, 레질리언스와 행복

정신건강과 행복에 대한 레질리언스의 효과를 보면 다문화가족 남편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제한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유추할 수 있다. Kandel, Raveis and Davies(1991)은 자아존중감이나 가족스트레스, 사회부적응 등과 함께 대처유형이 우울과 관련될 때 위기가 증가한다고 지적하였다. Park(2011)은 학교, 교사, 친구관계에서 위기를 겪은 청소년의 경우 부정적 자존감을 통해 우울이 자기과피적 회피행동 즉 자살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함과 동시에 우울과 대처간의 관계를 알리는 레질리언스의 실증적 단서를 제공했다. Meadus(2007)는 우울증을 가진 청소년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형성에 문제를 갖게 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부적응에 적절하게 대처하게 하는 자아탄력성의 특징을 나타낸다고 밝혔다. 다문화가족 남편도 당면하는 심리사회적 문제 자체보다는 레질리언스가 다문화가족 남편의 사회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며 또한 가족스트레스가 지속되고 부정적 정서의 상태에 있을 때 사회부적응이 높아짐을 예측할 수 있다. Kim(2006)은 가족체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탄력성 및 비합리적 신념을 매개로 한 연구결과 청소년이 가족체계를 긍정적으로 자각하였을 때 자아탄력성이 높아져 학교생활적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한 바 있다. 자아탄력성과 가족지지가 상호작용했을 때 청소년들은 학교환경에 보다 유연하게 적응하였다

(Song, 2006). Chung, Ahn, and Kim(2003)은 여러 가지 스트레스상황에 당면한 청소년이 합리적이고 긍정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자신이 처한 현실을 도피하려는 수단으로 자살충동을 느낀다고 하였다. 또한 부모로부터의 지나친 간섭과 통제, 심각한 갈등이 자살생각과 같은 극단적인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서 레질리언스가 매개요인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Go & Yoon, 2007). 따라서 취약한 정신건강으로 인해 위기나 부적응이 나타나며, 이를 극복하는데 레질리언스가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레질리언스를 통해 정신건강과 행복과간에도 매개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대상은 J도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남편이다. 이들의 사회부적응, 우울, 자아탄력성과 일상생활만족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구조화된 설문조사 방법을 사용하였다. 비확률 표집 중 유의표집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연구 수행 전 관할지역 공공 및 민간기관의 다문화가족 실무담당자를 찾아가 연구목적에 이해시키고 사전 양해를 얻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를 위해 사용한 척도들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문화가족 남편 30명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전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응답이 없는 문항, 신뢰도를 현저히 떨어뜨리는 문항 등을 수정하고, 가족과 다문화전공 교수 2인을 대상으로 내용타당도를 검토받은 후 내용을 수정 보완하였다. 본 조사는 2011년 3월 18일부터 4월 30일까지 수행되었다. 200부를 배포하였으며, 무응답, 중복응답 등으로 인해 부적절한 설문지를 제외한 총 184부의 설문지가 최종 분석 자료로 활용되었다. 사전조사와 본조사는 남편에게 설문을 배포하기 전 본 연구의 목적에 대한 설명을 하였고 응답이 이루어진 후 바로 수거하였다.

본 조사에 참여한 다문화가족 남편 184명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다문화가족 남편의 연령은 50대 이상이 52.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40대, 30대 순이며 부인의 연령은 20대가 133명으로 72.3%, 30대가 26.1%로 한국남성과의 높은 연령차를 보이고 있다. 결혼기간은 4년 이하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자녀수는 2명이 53.8%, 1명이 27.7%, 3명이 15.2%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중졸과 고졸이 각각 49.5%, 43.5%를 차지하였으며 직업은 대부분 농어업이 74.5%로 나타났다. 부인의 국적은 베트남이 58.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국 23.9%, 필리핀이 7.1%를 차지하였고, 가정

월평균소득은 150만원 이하가 44.1%로 나타났고 200만원 이하가 60% 가까이 나타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부인의 직업은 없는 경우가 92.9%를 나타내었고 부모와의 동거는 76.1%로 높은 동거율을 보였다.

2. 도구

1) 정신건강

정신건강은 Shin(2001)의 한국일반 정신건강척도(KGHQ) 중 사회부적응, 불안, 우울문항을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문항은 사회부적응은 ‘하고 있는 일에 잘 집중할 수 없다’, ‘매사에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없다’, ‘신경이 쓰여서 힘들게 느껴진 일이 많았다’ 등이며, 불안은 ‘걱정 때문에 잠을 잘 못잔 적이 많았다’, ‘계속해서 긴장감을 느낀 적이 자주 있다’, ‘인생이 절망적이라고 느낀 적이 있다’ 등이다. 우울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다고 느낀 적이 있다’, ‘우울감과 불행감을 느낀 적이 많았다’, ‘자신감이 없어졌다고 느낀 적이 있다’ 등으로 5점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이 측정도구의 Cronbach’s α값은 각각 .685, .721, .709로 나타났다.

2) 레질리언스

레질리언스 척도는 Lee(2006)이 사용한 것을 토대로 성격 차원에서 개인이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초점을 두고 개인적 차원의 레질리언스 측정은 자존감, 자기신뢰, 자기수용으로 구성하였다. Lee(2006)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자존감 .81, 자기신뢰 .75, 자기수용 .70으로 각각 나타났다. 자존감은 Rosenberg(1965)가 개발한 자존감 척도(Self Esteem Scale) 10문항 중 긍정적 5 문항을 측정하였는데 ‘나는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나는 자랑거리를 많이 가지고 있다’, ‘나는 좋은 자질을 많이

가지고 있다’ 등 5점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이 측정도구의 내적 일치도는 Cronbach’s α는 .901로 나타났다. 자기신뢰는 Park(1992)이 수정보완한 내용으로 ‘나는 무슨 일이든지 잘 할 수 있다’,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이라도 이겨낼 자신이 있다’ 등 4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이 측정도구의 내적 일치도는 Cronbach’s α는 .874로 나타났다. 자기수용은 Seo(1975)가 사용한 내용 중 ‘나는 내가 자랑스러운 존재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다’, ‘나는 내가 해놓은 일에 자부심을 느낀다’ 등 4문항을 구성하였으며 이 측정도구의 내적 일치도는 Cronbach’s α는 .774로 나타났다. 모든 문항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레질리언스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3) 행복

다문화가족 남편의 행복감을 알아보기 위한 척도는 Park and Kim(2009)의 성인들의 행복을 조사하였던 ‘행복’에 대한 질문을 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문항은 ‘마음이 통하는 친구가 있다’, ‘내가 하는 일에 보람을 느낀다’, ‘나의 미래는 희망적이다’ 등으로 구성되었다. 5점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행복감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측정도구의 Cronbach’s α 값은 .896로 나타났다.

긍정적 정서는 Bradburn(1969)의 표준화된 행복척도 중 긍정적 정서 항목 5문항을 사용하였다. ‘최근 2주간 특별히 어떤 일에 흥미나 재미를 느낀 적이 있다’, ‘최근 2주간 내가 했던 일에 대해 누군가의 칭찬을 듣고 자랑스러웠던 적이 있다’, ‘최근 2주간 내가 해냈던 일에 대해 기뻐던 적이 있다’ 등으로 5점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정서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 측정도구의 Cronbach’s α값은 .746로 나타났다.

부정적 정서는 Bradburn(1969)의 표준화된 행복척도 중 부정적 정서 항목 5문항을 사용하였다. ‘최근 2주간 의자에 앉아 있기 힘들 정도로 안절부절한 적이 있다’, ‘최근 2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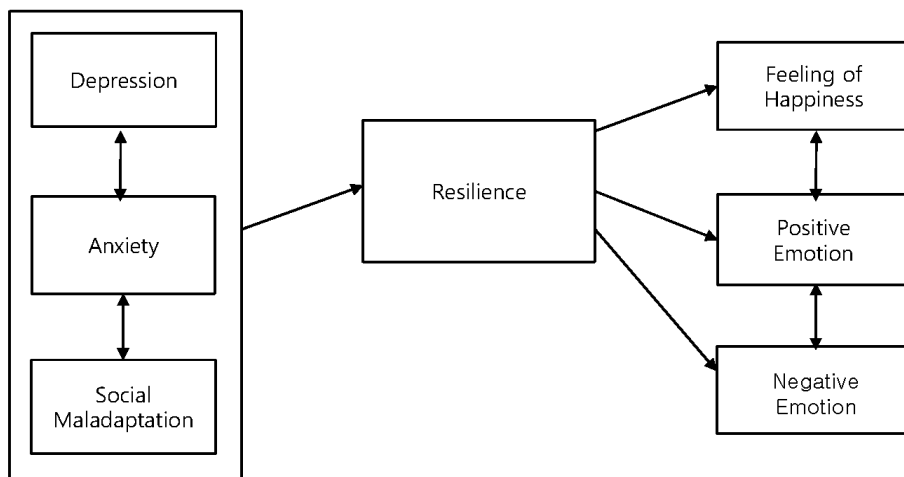


Figure 1. Mediating Effect Matrix of Resilience on Mental Health and Happiness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for Variables

		Mean	SD
Mental Health	Maladapation	3.286	.544
	Anxiety	2.962	.498
	Depression	2.711	.671
Resilience	Self-Esteem	3.359	.821
	Self-Trust	3.450	.878
	Self-Acceptance	3.082	.730
Happiness	Feeling of happiness	3.365	.607
	Negative Emotion	2.460	1.135
	Positive Emotion	3.040	.590

매우 외롭거나 다른 사람들과 동떨어져 있다고 느낀 적이 있다, '최근 2주간 지루하다고 느낀 적이 있다' 등으로 5점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정서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 측정도구의 Cronbach's α 값은 .707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다문화가족 남편의 정신건강, 레질리언스와 행복을 분석하기 위해 기술통계와 평균, 상관관계를 위한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 등을 사용하였으며 이들 자료는 PASW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4. 연구모형

다문화가족 남편의 정신건강, 레질리언스와 행복과의 관계에서 정신건강의 행복에 대한 레질리언스의 매개효과를 파악하는 연구모형은 <Figure 1>과 같다.

IV. 연구결과

1. 변인들의 일반적 경향

변인들의 일반적 경향은 <Table 1>과 같다. 정신건강에서 사회부적응 점수가 3.286으로 중간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불안, 우울 순으로 나타났으나 중간보다 낮게 나타났다. 레질리언스에는 전반적으로 중간을 상회하는 점수를 보였고 행복에서 행복감과 긍정적 정서는 3.365, 3.040으로 중간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부정적 정서는 2.460으로 중간보다 낮게 나타나 긍정적 특성을 보인 변인보다 부정적 특성을 나타내는 변인들의 점수가 낮게 나타나 다문화가족 남편들의 부정적 면보다 긍정적인 면을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2. 변인들의 상관관계

다문화가족 남편의 정신건강, 레질리언스와 행복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정신건강의 사회부적응, 우울, 불안은 레질리언스는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특히 자존감($r=-.478, p<.001$)과 자기신뢰($r=-.583, p<.001$)는 사회부적응과 부적 관련성이 높게 나타나 사회부적응이 높은 경우 레질리언스도 낮음을 알 수 있다. 행복과는 행복감($r=-.468, p<.001$)과 긍정적 정서($r=-.204, p<.01$)와는 유의한 부적 상관, 부정적 정서($r=.467, p<.001$)와는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즉 사회부적응이 높은 경우 행복감과 긍정적 정서가 낮게 나타나고, 부정적 정서는 높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불안과는 레질리언스와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고 행복과만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다. 즉 행복감($r=-.169, p<.05$)과 긍정적 정서($r=-.176, p<.01$)와는 유의한 부적 상관, 부정적 정서($r=.214, p<.01$)와는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즉 불안이 높은 경우 행복감과 긍정적 정서가 낮게 나타나고, 부정적 정서는 높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우울은 사회부적응과 유사하게 자존감($r=-.273, p<.001$)과 자기신뢰($r=-.400, p<.001$)는 사회부적응과 부적 관련성이 높게 나타나 사회부적응이 높은 경우 레질리언스도 낮음을 알 수 있다. 행복과는 행복감($r=-.412, p<.001$)과 긍정적 정서($r=-.215, p<.01$)와는 유의한 부적 상관, 부정적 정서($r=.421, p<.001$)와는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즉 우울이 높은 경우 행복감과 긍정적 정서가 낮게 나타나고, 부정적 정서는 높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레질리언스 영역인 자존감과 자기신뢰가 특히 행복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자존감은 행복감($r=.560, p<.001$)과 긍정적 정서($r=.152, p<.01$)와는 유의한 정적 상관, 부정적 정서($r=-.375, p<.001$)와는 유의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즉 자존감이 높은 경우 행복감과 긍정적 정서가 높게 나타나고, 부정

Table 2. Correlation of Variable

	1	2	3	4	5	6	7	8
1. Maladapation	1.000							
2. Anxiety	.220**	1.000						
3. Depression	.475***	.316***	1.000					
4. Self-Esteem	-.478***	.038	-.273***	1.000				
5. Self-Trust	-.583**	-.064	-.400***	.542***	1.000			
6. Self-Acceptance	-.193**	-.006	.040	.005	-.013	1.000		
7. Feelings of happiness	-.468***	-.169*	-.412***	.560***	.571***	.022	1.000	
8. Negative Emotion	.467***	.214**	.421***	-.375***	-.459***	.070	-.373***	1.000
9. Positive Emotion	-.204**	-.176**	-.215**	.152*	.218**	.117	.370***	-.036

* $p < .05$, ** $p < .01$, *** $p < .001$

적 정서는 낮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자기신뢰는 행복감($r = .571, p < .001$)과 긍정적 정서($r = .218, p < .001$)와는 유의한 정적 상관이, 부정적 정서($r = -.459, p < .001$)와는 유의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즉 자기신뢰가 높은 경우 행복감과 긍정적 정서가 높게 나타나고, 부정적 정서는 낮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3. 정신건강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레질리언스의 매개효과

1) 정신건강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레질리언스의 매개효과

다문화가족 남편의 정신건강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레질리언스의 매개효과는 <Table 3>과 같다. 레질리언스의 행복감에 대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회귀분석 조합에 따른 절차를 사용하였다. 1 단계에서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2 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주어야 하며 3 단계에서는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이 동시에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면서 동시에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력이 2 단계보다 3 단계의 회귀식에서 감소하거나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 매개변인의 매개효과가 있다 (Bennett, 2000).

매개효과는 완전매개와 불완전매개로 구분되는데 완전매개는 3 단계에서 종속변인에 대한 매개변인의 영향력이 유의하면서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며 불완전매개는 3 단계에서 종속변인에 대한 매개변인의 영향력이 유의하면서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도 유의한 경우를 말한다(Kim & Kim, 2007). 이러한 근거에 따라 첫째, 정신건강이 레질리언스에 영향을 미치고 둘째, 정신건강이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지 셋째, 정신건강과 레질리언스가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정신건강이 행복감에 미치는 레질리언스의 매개효과 결

과 <Table 3>은 1 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사회부적응($\beta = -.384, p < .001$), 우울($\beta = -.169, p < .05$)이 매개변인인 레질리언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2 단계에서는 사회부적응($\beta = -.351, p < .001$), 우울($\beta = -.240, p < .05$)이 종속변인인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3 단계에서는 매개변인인 레질리언스($\beta = .424, p < .001$)는 행복감에 가장 높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독립변인인 사회부적응($\beta = -.188, p < .001$)과 우울($\beta = -.169, p < .05$)도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어 레질리언스는 정신건강과 행복감 사이에 불완전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정신건강 모든 영역 중 사회부적응과 우울이 레질리언스에 영향을 미치며 레질리언스가 정신건강과 행복감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부적응과 우울이 높다 하더라도 레질리언스가 일정수준 존재한다면 행복감을 유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2) 정신건강이 긍정적 정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레질리언스의 매개효과

정신건강이 레질리언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사소통의 매개효과는 <Table 4>와 같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앞서 언급한 Baron과 Kenny(1986)의 회귀분석 조합에 따른 절차를 사용하였다. 첫째, 정신건강이 레질리언스에 영향을 미치고 둘째, 정신건강이 긍정적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지 셋째, 정신건강과 레질리언스가 긍정적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정신건강이 긍정적 정서에 미치는 레질리언스의 매개효과 결과 <Table 4>는 1 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사회부적응($\beta = -.384, p < .001$), 우울($\beta = -.169, p < .05$)이 매개변인인 레질리언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2 단계에서는 사회부적응($\beta = -.339, p < .001$), 우울($\beta = -.239, p < .05$)이 종속변인인 긍정적 정서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3 단계에서는 매개변인인 레질리언스($\beta = .197, p < .01$)은 긍정적 정서에 가장

Table 3. Mediating Effect of Resilience on Mental Health and Feelings of Happiness

Step	Path	β	R^2	F
1st Step	Maladaptation	-.384***	.220	16.874***
	Anxiety	-.121		
	Depression	-.169*		
2nd Step	Maladaptation	-.351***	.266	21.736***
	Anxiety	-.015		
	Depression	-.240*		
3rd Step	Maladaptation	-.188***	.406	30.615***
	Anxiety	-.067		
	Depression	-.169*		
	Resilience	.424***		

* $p < .05$, *** $p < .001$

Table 4. Mediating Effect of Resilience on Mental Health and Positive Emotion

Step	Path	β	R^2	F
1st Step	Maladaptation	-.384***	.220	16.874***
	Anxiety	-.121		
	Depression	-.169*		
2nd Step	Maladaptation	-.339***	.273	22.476***
	Anxiety	-.064		
	Depression	-.239*		
3rd Step	Maladaptation	-.263**	.303	19.443***
	Anxiety	-.088		
	Depression	-.206**		
	Resilience	.197**		

* $p < .05$, ** $p < .01$, *** $p < .001$

높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독립변인인 사회부적응($\beta = -.263$, $p < .01$)과 우울($\beta = -.206$, $p < .01$)도 긍정적 정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어 레질리언스는 정신건강과 긍정적 정서 사이에 불완전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정신건강 특히 우울과 사회부적응이 레질리언스에 부적 영향을 미치며 레질리언스가 사회부적응 및 우울이 긍정적 정서 사이에 매개하여 긍정적 정서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함을 나타낸다.

3) 정신건강이 부정적 정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레질리언스의 매개효과

정신건강이 부정적 정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사소통의 매개효과는 <Table 5>와 같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앞서 언급한 Baron과 Kenny(1986)의 회귀분석 조합에 따른 절차를 사용하였다. 첫째, 정신건강이 레질리언스에 영향을 미치고 둘째, 정신건강이 부정적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지 셋째,

정신건강과 레질리언스가 부정적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정신건강이 부정적 정서에 미치는 레질리언스의 매개효과 결과 <Table 5>는 1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사회부적응($\beta = -.384$, $p < .001$), 우울($\beta = -.169$, $p < .05$)이 매개변인인 레질리언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2단계에서는 사회부적응($\beta = -.121$, $p < .05$), 우울($\beta = -.122$, $p < .05$)이 종속변인인 부정적 정서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3단계에서는 매개변인인 레질리언스($\beta = -.176$, $p < .05$)는 부정적 정서에 가장 높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독립변인인 불안($\beta = .132$, $p < .05$)이 부정적 정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어 레질리언스는 정신건강과 긍정적 정서 사이에 불완전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정신건강 특히 우울과 사회부적응이 효율적 레질리언스에 부적 영향을 미치며, 레질리언스가 정신건강과 부정적 정서 사이에 매개하여 부정적 정서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함을 나타낸다.

Table 5. Mediating Effect of Resilience on Mental Health and Negative Emotion

Step	Path	β	R^2	F
1st Step	Maladaptation	-.384***	.220	16.874***
	Anxiety	-.121		
	Depression	-.169*		
2nd Step	Maladaptation	.121*	.070	4.545**
	Anxiety	.111		
	Depression	.122*		
3rd Step	Maladaptation	.054	.095	4.677**
	Anxiety	.132*		
	Depression	.092		
	Resilience	-.176*		

* $p < .05$, ** $p < .01$, *** $p < .001$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 남편의 정신건강, 레질리언스와 행복과의 관계를 파악해보고 정신건강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레질리언스의 매개효과를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J도에 있는 다문화가족 남편 184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자료분석은 기술통계, 상관관계, 중다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결과에서 밝혀진 결과를 토대로 시사점을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족 남편의 정신건강, 레질리언스와 행복의 일반적 경향은 정신건강 중 사회부적응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렇게 사회부적응 점수가 높게 나타난 것은 한국사회에서 다문화가족 남편이 잘 적응하고 살아가는데 있어 어려움을 간접적으로 나타낸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 국제결혼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의 시각의 변화가 필요하며 지역사회 내에 동참하는 기회가 주어져야 하겠다. 또한 다문화가족 남편도 폭넓은 사회적 관계를 위해 긍정적 사회참여가 자신의 정신건강과 행복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정신건강의 사회부적응, 우울, 불안은 레질리언스와는 모두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특히 사회부적응과 우울은 레질리언스와 부정적 관련성이 높게 나타나, 사회부적응과 우울이 높은 경우 레질리언스는 낮게 나타날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신건강은 우울이나 강박과 같은 심리적 손상이 없는 상태 또는 행복하고 만족하며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만족스러운 인간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능력까지를 포함한다(Kim, 2006)는 결과와 같이 다문화가족 남편의 정신건강은 레질리언스와 깊은 관련성을 나타나, 개인의 안정된 정신건강의 확보는 문제해결과 긍정적 적응력에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주었다.

또한 사회부적응, 우울, 불안은 행복과도 모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특히 사회부적응과 우울은 행복감과 긍정적 정서와 유의한 부적 관련성이 높게 나타나, 사회부적응과 우울이 높은 경우 행복감과 긍정적 정서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부정적 정서와는 유의한 정적 상관성이 나타나 정신건강이 좋지 않을 때 부정적 정서도 높게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레질리언스와 행복과도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 레질리언스가 높을수록 행복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존감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고 활력적인 결혼생활을 이끌어간다(Lee, 1993; Culp & Beach, 1998)는 것을 통해 레질리언스가 행복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레질리언스가 불안감을 느끼거나 억압적이고 부담을 주는 상황을 극복하는 힘과 관련되는데(Pajares, 1997) 부정적 정서를 완화시키는데 레질리언스가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들을 토대로 볼 때 레질리언스가 높을수록 결혼생활이나 전반적인 행복이 높게 나타난 것은 행복을 위해서 레질리언스의 개발이 우선되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특히 다문화가족 남편의 가족과 사회에서의 위상을 감안한다면 레질리언스를 강화시키고 이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둘째, 사회부적응과 우울이 레질리언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정신건강이 좋지 않을 때 레질리언스에 부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문화가족 남편이 사회적으로 부적응 상황이고, 우울이 높을 때 레질리언스가 발휘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정신건강향상을 위해서도 레질리언스의 작용이 중요함을 보여준 결과이다.

사회부적응과 우울이 종속변인인 행복감에도 유의한 영향을 나타냈다. 레질리언스와 같이 사회부적응과 우울이 높을수록 행복감이 낮게 나타났다. 즉 다문화가족 남편은 자신의 역할과 문제에 맞서 해결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것 등을 의미하는 사회부적응도가 낮을수록 행복감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스트레스와 우울이 높을수록 행

복감은 낮게 나타났다는 결과(Choi, 2010)와 같이 우울이 높을수록 행복감이 낮게 나타났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의 남편의 정신건강이 결혼적응에 영향을 준다(Chu et al., 2008)는 결과를 토대로 유추해 볼 때 다문화가족 남편의 정신건강은 행복감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요인으로 작용됨을 알 수 있으며 행복을 위해서는 정신건강의 관리와 확보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매개변인인 레질리언스는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부적응과 우울이 행복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과 동시에, 레질리언스는 정신건강과 행복감 사이에 불완전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혼생활에 있어 사회부적응과 우울이 높다하더라도 레질리언스가 존재한다면 행복감을 향유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과 레질리언스의 강화가 행복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겠다.

셋째, 사회부적응과 우울이 종속변인인 긍정적 정서에도 유의한 영향을 나타냈다. 즉 사회부적응과 우울이 높을수록 긍정적 정서가 낮게 나타났다. 다문화가족 남편은 자신의 역할과 문제에 맞서 해결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것 등을 의미하는 사회부적응도가 낮을수록 긍정적 정서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매개변인인 레질리언스는 긍정적 정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부적응과 우울이 긍정적 정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과 동시에, 레질리언스는 정신건강과 긍정적 정서 사이에 불완전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긍정적 자존감을 가진 사람일수록 인간관계에서의 만족도, 친밀감을 갖는다(Hoyle et al., 1999)는 결과로 볼 때 다문화가족 남편의 레질리언스는 긍정적 정서를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요인으로 작용됨을 알 수 있다. 또한 결혼생활에 있어 사회부적응과 우울이 높다하더라도 레질리언스가 존재한다면 긍정적 정서를 향유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레질리언스를 개발시키는 노력이 긍정적 정서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겠다.

넷째, 사회부적응과 우울이 종속변인인 부정적 정서에도 유의한 영향을 나타냈다. 사회부적응과 우울이 높을수록 부정적 정서가 높게 나타났다. 즉 우울이 다양한 병리현상 중 정서적 문제와 관련이 있고(Jung, 1989), 부정적 정서가 수반된 활동에 우울이 높다는 결과들(Chun, 2001; Park, 2006)을 볼 때 우울과 부정적 정서와의 밀접한 관련성을 파악할 수 있다.

매개변인인 레질리언스는 부정적 정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부적응과 우울이 부정적 정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과 동시에, 레질리언스는 불안과 부정적 정서 사이에 불완전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정신건강 중 불안과 부정적 정서간에 레질리언스의 매개효과가 나타나 부정적 정서에 불안이 더 강력히 작용하는 것에 대한 레질리언스의 매개효과가 나

타났다는 것이다. 즉 결혼생활에 있어 불안이 높다하더라도 레질리언스가 존재한다면 부정적 정서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신건강은 레질리언스와 행복과의 높은 관련성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사회부적응은 다문화가족 남편의 행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이들을 사회로부터의 주변인이라는 언급에서 확인하듯이 이러한 사회적 편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실천적 개입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삶의 활력을 갖지 못하고 우울한 삶을 유지하고 있는 이들에게 이들의 정신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실천현장의 적극적 노력이 요구되며, 실천적 방안으로 자신의 역할에 집중하고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이를 해결하려는 의지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신건강을 위한 상담과 프로그램 등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레질리언스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인되었다. 특히 레질리언스는 국제결혼 부부의 행복에 절대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어 역경에 직면하여 회복하고 스스로 극복하는 능력이라는 점에서 다문화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다문화가족 남편의 레질리언스 접근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다문화가족 남편이 그동안 국제결혼이라는 삶의 여정에서 다양한 경험들이 항상 긍정적이지만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볼 때 다문화가족에서 가족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중추적 역할을 해내는 존재로서 이들을 위한 레질리언스 향상 프로그램이 우선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신건강과 행복에 대한 레질리언스의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정신건강의 유지와 행복을 위해 레질리언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과 노력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 레질리언스는 정신건강과 행복을 매개하는 요인으로서 작용하고 있어 정신건강과 행복을 위해서는 다문화가족 남편의 레질리언스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레질리언스 강화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교육을 담당할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의 능력배양에 앞서 다문화가족 남편에 대한 객관적이고 긍정적인 관점과 시각의 변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겠다.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 남편의 행복에 있어 정신건강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며 또한 정신건강과 행복의 레질리언스의 매개효과를 통해 이들 관계를 파악하였다. 또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문화가족 남편의 행복을 위한 레질리언스를 고려한 프로그램의 시행과 정책적 지원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이다. 나아가 다문화가족 남편을 문제중심적 시각으로 바라보기 보다는 레질리언스와 행복이라는 긍정적 시각과 강점관점에서 접근한 점은 본 연구의 중요한 의의이다. 제한점으로는 일부지역만의 다문화가족 남편을 대상으로 하

였으므로 일반화하기엔 무리가 있으며, 기존의 측정도구를 그대로 사용한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이들의 행복도 수준에 따라 구분하여 접근하지 못한 점, 행복에 영향을 주는 사회 환경 뿐만 아니라 문화적 요인을 포함시키지 못한 점이 한계로 남는다. 따라서 본 연구가 일반화되고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보다 정확한 측정도구와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REFERENCE

- Abramson, L. Y., Metalsky, G. I., & Alloy, L. B.(1989). Hopelessness. depression: A theory-based subtype of depression. *Psychological Review*, 96, 358-372.
- Andrew, F. & Withey, S. B.(1976). *Social indicators of well-being: America's perception of life quality*. N.Y.: Plenum.
- Bandura, A.(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Y.: Freeman and company.
- Baron, R. M. & Kenny, D. A.(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79-92.
- Bennett, J. A.(2000). Mediator and moderator variables in nursing research: Conceptual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Research Nursing Health*, 23, 1173-1182.
- Block, J. & Kremen, A. M.(1996).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2), 349-361.
- Bradburn, N. M.(1969).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Chicago, IL: Aldine.
- Campbell, A.(1981). *The sense of well-being in America*. N.Y.: McGraw-Hill.
- Chae, O. H. & Hong, D. A. G.(2008). Case study on the conflicts faced by the husbands married female immigrants. *Korean Association of Human Ecology*, 17(5), 891-902.
- Chang, J. K., Jun, J. M., & Shin, Y. K.(2009). Analysis of resilience factors in multi-cultural families using depth interviews.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47(6), 21-38.
- Chapman, P. L. & Mullis, R. L.(1999). Adolescent coping strategies and self-esteem. *Child Study Journal*, 29(1), 69-78.
- Choi, J. Y.(2009). A qualitative study on the experience of Korean husbands who married women of different nationality.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26, 225-254.
- Choi, M. M.(2010). Analysis of factors effecting on marital happiness by level of income.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29, 85-114.
- Chu, H. H., Park, O. I., Kim, J. H., & Park, J. S.(2009). The effects of family stress and social support on marital adjustment for the immigrant women's husband.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3(4), 85-101.
- Chun, Y. J.(2001). Path model for the family and school environment affecting adolescent suicidal ideation mediated by depression.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39(1), 151-167.
- Chung, H. K., Ahn, O. H., & Kim, K. H.(2003). Predicting factors on youth suicidal impulse. *Korean Journal of Youth*, 10(2), 107-126.
- Cicchetti, D. & Toth, S. L.(1998). The development of depression in children and adolescents. *American Psychologist*, 53(2), 221-241.
- Culp, L. N. & Beach, S. R. H.(1998). Marriage and depressive symptoms: The role and bases of self-esteem differ by gender.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2, 647-663.
-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 542-575.
- Diener, E. (2000). Subjective well-being: The science of happiness and a proposal for national index. *American Psychologist*, 55, 34-43.
- Diener, E., Lucas, R. E., & Oishi, S.(2002). Subjective well-being: The science of happiness and life satisfaction. In C. R. Snyder & S. J. Lopez (Eds.),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pp 63-73). N.Y.: Oxford University.
- Go, J. H. & Yoon, K. R.(2007). The relationship between daily life stress and suicidal ideation of adolescents: The role of ego-resiliency as a buffer. *Studies on Korean Youth*, 18(1), 185-212.
- Hoyle, R., Landis, K. R., & Umberson, D.(1988). Social relationships and health. *Science*, 241, 540-545.
- Jung, C. S.(2008). *Qualitative comparative study on inter-*

- married women's adaptation style*. Doctoral Dissertation of Baesuk University, Cheonan.
- Jung, I. S.(1989). Adolescents' mental health. *Theacher's Forum*, 122-125.
- Kandel, D., Raveis, V., & Davies, M.(1991). Suicidal ideation in adolescence: Depression, substance use, and other risk factor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0, 289-309.
- Kanfer, F. H. & Hagerman, S.(1981). The role of self-regulation. In L. P. Rehm(Eds.), *Behavior therapy for depression : Pres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pp. 143-180). N.Y.: Academic.
- Kang, K, J., & Chung, C. S.(2009). Adjustment factors for family life of multicultural family couples. *Korean Family Resources Management*, 13(2), 153-167.
- Kim, E. K.(2008). The factors related to the marital satisfaction of the foreign wives who live in small town.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6(6), 83-94.
- Kim, H. S. & Kim, B. S.(2007). The mediating effect of relationship on the old's stress and depression. *Journal of Korean Gerontology*, 27(1), 23-37.
- Kim, J. Y.(2006). *A study on improvement of resilience and postnatal women's experience*. Master's thesis of Methodist theological College, Seoul.
- Kim, M. J.(2005). *Affecting on family and school adjustment of adolescent's stress and ego resilience*. Master's thesis of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 Kim, M. K.(2009). Ethnographic research on the 'married life' of international married men. *Journal of Korean Family Relationship*, 14(3), 179-211.
- Kim, M. K.(2011). A study on life history of intermarried Korean men's family dissolution.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9(4), 1-15.
- Kim, O. N.(2006). A study on marital conflicts and abuse of immigrant women. *Korean Academy of Family Social Work*, 18, 33-75.
- Kim, Y. S.(2007). A study on the marital happiness among female marriage immigrant in Seoul.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21, 217-252.
- Kim, Y. S.(2010). The development and effectiveness of marriage enrichment program based on family resilience approach for female marriage immigrants. *Journal of Korean Family Relationship*, 14(4), 69-90.
- Lazarus, R. S. & Folkman, S.(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Y.: Springer-Verlag.
- Lee, E. J.(1993). *Relationships on married adults' self-respect and active marital life*. Master's thesis of Kyunghee University, Seoul.
- Lee, K. M. & Kim, J. S.(2009). A study on biography of men international marriage: A story of neo-diaspora of seven men.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61(1), 135-162.
- Lee, K. S.(2006). A study on the social adaptation process of women migrants-Focusing on defecting North Korean residents in South Korea. *The Journal of Asian Women*, 45(1), 191-234.
- Lee, S. J.(2006). Resilience and protective factor on adolescents experienced family violence. Doctoral Dissertation,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 Levine, S. B.(1991). Psychological intimacy. *Journal of Sex & Marital Therapy*, 17(4), 259-269.
- Luthar, S. S., Cicchetti, D., & Becker, B.(2000). The construct of resilience: A critical evaluation and guidelines future work. *Child Development*, 71, 543-562.
- Meadus, R. J.(2007). Adolescents coping with mood disorder: A grounded theory study. *Journal of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14, 209-217.
- Metz, E. M. & Epstein, N.(2002). Assessing the role of relationship conflict in sexual dysfunction. *Journal of Sex & Marital Therapy*, 28, 139-164.
- O'Connell-Higgins, R.(1983). *Psychological resilience and capacity for intimacy*. Qualifying paper. Boston: Harvard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 Pajares, F.(1997). Current directions in self-efficacy research. *Advances in motivation and achievement*, 10, 1-49.
- Park, B. K.(2006). *An exploratory study of eco-system factors on adolescents' suicidal ideation*. Doctoral Dissertation, th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hungju.
- Park, N. S.(1992). *The effect of Methylphenidate therapy on ADHD's cognitive, behavioral, social, learning, emotional adaptation*. Master's thesis of Yonsei University, Seoul.
- Park, Y. S. & Kim U. C.(2009). Psychological, relational, economical resource: How affects Korean' happiness?. *Journal of Korean Psychology: Social Problem*, 15(1), 94-118.
- Park, J. S.(2011). Structural relationship os social risk factors and suicide ideation in adolescence, based

- on 'escape theory' model.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63(3), 5-27.
- Rew, L., Taylor-Seehafer, M., Thomas, N. Y., & Yockey, R. D.(2001). Correlates of resilience in homeless adolescents. *Journal of Nursing Scholarship*, 33(1), 33-40.
- Rosenberg, M.(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agy, S. & Dotan, N.(2001). Coping resources of maltreated children in the family: A salutogenic approach. *Child Abuse & Neglect*, 25, 1463-1480.
- Seo, B. Y.(1975). *A psychological study self-identity formation*. Doctoral Dissertation, the Kungbuk National University, Daegu.
- Seo, H. J. & Kim, J. O.(2009). Self-esteem and happiness caused by university student's perception of family strengths. *Korean Journal of Family Relations*, 14(3), 141-178.
- Shin, S. I.(2001).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general health questionnaire: KGHQ-20 & KGHQ-30. *The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46, 210-235.
- Song, J. H. & Lee, T. Y.(2010). A study on marital adjustment factors among multicultural couples.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0(2), 164-192.
- Song, Y. K.(2006). *Ego-resilience, social support and school adjustment of children*. Master's thesis of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hungju.
- Turner, S. G.(2001). Resilience and social work practice: Three case studies. *Families in society*, 82, 441-448.
- Um, M. Y.(2010). Life history study of male spouse of female marriage immigrants. *Journal of Korean Family Relationship*, 14(4), 261-298.
- Veenhoven, R. (1991). Questions on happiness: Classical topics, modern answers, blind spots, In F. Strack, M. Argyle, & Schwarz(Ed), *Subjective well-being: An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pp. 7-26). Oxford: Pergamon Press.
- Walsh, F.(1998). Editorial : The resilience of the field of family therapy.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24, 269-271.
- Wenzlaff, R. M., Wenger, D. M., & Roper, D. W.(1988). Depression and mental control: The resurgence of unwanted negative though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 882-892.
- Yang, S. M.(2007). The effects of related variables on happiness in rural international marriage couples. *Rural Society*, 17(2), 5-38.
- Yoon, I. J., Park, Y. H., Yoon, Y. S., Jang, H. K., Lim, I. S.(2007). Social Adaptation of North Korean Migrant Families and Changes in Family Relations.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2(2), 89-108.

□ 접수 일 : 2012년 07월 15일

□ 심사 일 : 2012년 07월 27일

□ 게재확정일 : 2012년 10월 25일